

30조 넘는 빚투... 코스피 출렁이자 2030 개미들 ‘벼랑 끝’

7거래일 만에 빚투 규모 3조 늘어
대차거래 잔고 지난해보다 56% ↑
2030 신용융자 잔고 4.2조로 정점

#. 시중은행 A행에 다니는 윤모(30·남)씨는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동원해 주식에 투자해왔다. 코스피가 9000선 후반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그는 매도하지 않았고, 이후 지수가 43.9% 급락하면서 전 재산과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자금이 여전히 손실 구간에 몰려 있다. 같은 은행 김모(31·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단기 매매를 하던 그는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빠지면서, 마이너스통장 두 개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선 등에서 조정을 받으며 전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는 “대출로 투자했다가 물려서 업무에 집중 못하는 동료도 여럿”이라고도 했다. 매일 대출과 투자 상품을 다루는 은행 직원들마저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가 6000~7000선을 오가며 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선 과열 경고등도 함께 켜지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다시 증가하며 ‘빚투’(빚내서 투자)가 불어난 데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따능시로 생성한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손’ 관련 이미지.

잡히는 대차거래 잔고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빚의 굴레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8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 4일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빚투 규모가 3조4637억원 늘었다. 신용거래용자는 상승장 초반 증시 유동성을 공급하며 상승 탄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잔고는 시장 과열 신호로도 지목된다. 특히 증시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을 확대할 수 있어 시

장 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사는 보통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 상태가 이를 이상 이어지면 그다음 날 주식을 하한가(-30%)로 처분한다.

증시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 개미들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97조원으로 떨어졌던 투자자에탁금은 14일 기준 100조7103억원으로 돌아왔다. 올해 최고점이었다던 5월 12일 137조4174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13일부터 사흘만에 100조원으로 다시 올라섰다. 증시 빚투와 맞물려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9일 발표되는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

정치는 2000조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 구매한 돈을 합한 수치다.

공매도 베팅 규모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지난 12일 기준 19조4480억원이다. 지난달 말 16조7343억원 보다 2조7000억원 가량 많다. 추가 공매도 대기 수요도 빠르게 불어가고 있다.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달 30일 133조4126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 14일 173조1899억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말(110조9229억원)에 비해서는 56.14% 급증했다. 대차거래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미리 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잔고 증가는 향후 공매도 물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2030 한숨 늘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특히 20·30 투자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계약직으로 일하는 취업준비생 김모(32)씨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용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약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식 계좌에 넣었다”며 “최근 손실이 커져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윤모(35)씨는 상장지수

펀드(ETF)와 대기업 우량주 위주로 투자했다가 약 600만원을 잃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3조12억원에서 올해 5월 4조2214억원으로 40.6% 급증하며 정점을 찍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신용융자 증가율 36.7%보다도 약 4%포인트 빠른 속도였다.

올해 상반기 하나·KB·NH투자증권의 연령대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20·30대가 34만2749건으로 타 세대에 비해 많았다.

전문가는 이런 흐름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규정하며 경고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대는 주식투자 경험이 수십 년씩 쌓인 세대가 아니다 보니, 신용융자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주식에 넣는 위험한 방식에 상대적으로 쉽게 손을 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어도 변동성이 심한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며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자기 소득에서 남는 돈으로 해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 여기서 ‘장기’는 몇 달도 채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메리츠증권, 홍콩에 첫 해외법인... 글로벌 사업 ‘시동’

올해 하반기 출범 목표
브로커리지 업무 맡을 예정

메리츠증권이 홍콩에 첫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 그동안 국내 사업에 집중해 온 메리츠증권이 해외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홍콩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립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설 법인은 홍콩 현지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한편 해외 딜 소싱 등 브로커리지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본사의 기업금융(IB)과



메리츠증권 전경.

세일즈앤드레이딩(S&T)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설립을 위한 인력 구성도 진행되고 있다. 초대 법인장 인선을 마친 가운데 본부장급을 비롯한 현지 금융시장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의 해외 진출은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총 16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 중 해외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곳

은 메리츠증권이 유일하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해외법인이나 사무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첫 해외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한 것은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글로벌 자금과 투자 기회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시장과 연결되는 관문 역할을 하는 홍콩을 거점으로 현지 거래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국내 본사의 IB·S&T 사업과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홍콩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인 만큼 현지에서 딜 소싱이나 브로커리지 등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외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어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증권, AI 활용 영상 디지털 콘텐츠 ‘금상’

KB증권은 ‘ICT 어워드 코리아 2026’에서 AI 기반 영상 콘텐츠로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ICT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시상식으로 올해로 23회째를 맞았다. P·C·모바일 웹·앱·디지털 플랫폼·프로모션 등 총 211개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KB증권은 증권·부동산 분야에서 디지털AI 영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연금패키지로 뱅뱅하게’, ‘국내주식 웰컴백’, ‘중개형 ISA’를 주제로 제작한 3편의 AI 기반 영상 광고이다. ‘연금패키지로 뱅뱅하게’와 ‘중개형 ISA’ 영상은 절세와 노후 준비 등 장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국내주식 웰컴백’ 영상은 국내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관련 혜택과 정보를 소개했다. 특히 스크립트 작성부터 보이스 오버 생성, 시각적 요소 구성,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상 제작 전반에 AI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영상 제작에 소요되던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시장 환경과 고객 관심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신속하게 수정·재배포할 수 있는 제작 체계를 마련했다.

KB증권은 이번 AI 영상 제작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투자 및 자산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디지털 고객 경험 전반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을 통해 고객의 투자 여정과 자산성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엔비디아, 오픈AI에 149조 신용 지원... ‘순환금융’ 논란

자사 AI 가속기 독점 공급 조건
SB에너지에 15억달러 별도 투자

엔비디아가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1000억달러 넘는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

엔비디아는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 건설 중인 ‘포츠파이크’ 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개발사인 소프트뱅크 자회사 SB에너지에 최대 1050억달러(약 149조원) 규모의 여러 건의 ‘잔존가치 보증계약(residual value guaranties)’을 맺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부지에 4.25기가와트(GW)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신용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상 이 데이터센터의 임차인은 오픈AI다.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엔비디아는 “4.25GW 규모의 AI 팩토리는 엔비디아 GPU 약 150만개 또는 엔비디아 매출 1500억~2000억달러(약 211조~282조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츠파이크 1단계는 4.25GW 규모로, 2028~2030년 단계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AI 가속기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SB에너지에 신용 지원을 제공하고,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

은 오픈AI가 임차료를 내면서 엔비디아가 제공한 보증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만일 오픈AI가 파산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엔비디아가 ‘보증된 최소 임대차치’와 ‘대체 임대·매각으로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SB에너지에 대신 지급하되 이후 오픈AI에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식 자료는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포츠파이크 2단계 3.75GW 용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제공할 재량권을 갖는다.

엔비디아는 잔존가치 보증계약과 별도로 SB에너지에 15억달러(약 2조1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비상장사로 별도 신용등급이 없다 보니 엔비디아의 대차대조표를 신용보강 수단으로 빌려 쓰는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보증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서 빌린 돈으로 오픈AI가 다시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는 ‘순환 금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이것은 순환금융인가? 그렇지 않다”며 “오픈AI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용량이 가동되면 엔비디아의 잔여 위험은 감소한다”고 반박했다.

/신하은 기자